



전남대병원 쓰촨 지진 희생자 조문

전남대병원 김영진 병원장(사진 맨 왼쪽) 등 병원 관계자 10여명은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한 중국대사관 주 광주영사사무소에 마련된 쓰촨성 대지진 희생자弔慰을 찾아 조문하고 조의금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994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꾸준히 학술교류를 해온 중국 선전(深川)시 인민의원에도 조의문을 보내고 의료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현주기자 ahj@

‘김용근 민족교육상’에 김명준 감독



일본 조선인학교 이야기를 필름에 담아 잔잔한 감동을 줬던 영화 ‘우리 학교’의 감독 김명준(사진)씨가 민족 교육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14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은 24일 오후 3시 김용근 선생의 묘가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용근 민족교육상은 광주일고 등에서 교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강진에서 전원생활 중이던 김용근(1917~1985)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제자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투옥돼 끝내 숨진 것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제정했다. /정상필기자 camus@

고영일 전남대 교수 최우수 연제상



전남대병원 알레르기과 고영일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에서 최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연제상은 학회 학술대회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 157편을 심사해 가장 우수한 논문발표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고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만성 천식 등으로 인해 천식에서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원인 세포의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했다.

전남대 의대를 나온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연수를 거쳤고, 2003년 제1회 서봉의학상을 수상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대학생멘토링 연수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22일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2008학년도 제1기 대학생멘토링 연수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450여명은 광주시내 초·중·고교 86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광주 전국소년체전 준비 실무 총괄 김영자 선수단 총단장

“식전·식후 행사, 학교 수업 내용으로 꾸밉니다”



“광주에서 14년만에 열리는 37회 전국소년체전이 학생들을 위한 큰 잔치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14년만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총괄해 온 김영자 광주 선수단 총단장(광주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은 “모든 프로그램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소년체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소년체전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전·식후 행사도 학생들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이번 소년체전기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장이 광주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학부모등 3만4천명이 광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각자·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남은 날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관계 장학관, 장학사들이 집에 거의 뜻들어갈 정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업대학 학장 김양식씨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대학 신임 학장에 김양식(63) 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온 신임 김 학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선출됐으며 농협교육원장, 농협 광주남부부장,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농업교육 전문가로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KTF 고객 무료 영화 시사회

KTF 광주마케팅본부(본부장 나석균·사진)는 23일 오후 8시20분 광주CGV에서 ‘우수고객 초청 무료 영화 시사회’를 갖는다.



이날 시사회에는 KTF 우수고객 154명이 초대됐고 이들이 연인·가족 등 1명을 동반할 수 있어 모두 298명이 초대됐으며 영화 ‘인디애나존스4’를 관람하게 된다. 초청된 모든 고객에게는 에스프레소잔 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엄홍길 재단’ 창립총회

히말라야 14좌 완등으로 유명한 산악인 엄홍길(48)씨를 중심으로 산악정신을 되살리는데 단체가 만들어진다.



엄홍길 휴먼재단은 28일 오후 5시 종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창립 발기인총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내외 청소년, 소외계층, 산악인 등과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엄홍길 산악인상’을 제정할 예정이다.

인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이기하 ◆환경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조희승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는 전남 발전 가능자”

장승우 엑스포 조직위원장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는 여수는 물론 전남 브랜드 상시 개최하는 가능자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장승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여수세미나관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에서 “여수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위원장은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관

련, 중앙정부는 법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체계구축과 특별법 제정 및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 공항 확장 등 SOC확충을,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련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국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진행해 수업결손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와 무용·춤을 혼합한 태권무와 겸도, 재즈댄스공연은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광주의 예상 성적을 문자 김 단장은 “지난해 종합 4위에서 한단계 오른 종합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이번 소년체전기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장이 광주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학부모등 3만4천명이 광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각자·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남은 날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관계 장학관, 장학사들이 집에 거의 뜻들어갈 정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남고향주부모임 5·18묘지 참배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련, 중앙정부는 법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체계구축과 특별법 제정 및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 공항 확장 등 SOC확충을,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련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국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진행해 수업결손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와 무용·춤을 혼합한 태권무와 겸도, 재즈댄스공연은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종합 4위에서 한단계 오른 종합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이번 소년체전기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장이 광주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학부모등 3만4천명이 광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각자·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남은 날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관계 장학관, 장학사들이 집에 거의 뜻들어갈 정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신세계 장난감 도서관에 놀이용품 전달

금남지구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



경남고향주부모임 사·군회장단과 전남지역 회장단 50여명이 지난 21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능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20~21일 영암 현대삼성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영호남 여성지도자 농촌사랑 남도문화포럼’ 참가자 광주를 방문했다.

민주묘지를 방문한 정명애 경남고향주부모임 회장은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학생모두를 쓴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을 감출 수 없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앞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한 흥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련, 중앙정부는 법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체계구축과 특별법 제정 및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 공항 확장 등 SOC확충을,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련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국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진행해 수업결손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와 무용·춤을 혼합한 태권무와 겸도, 재즈댄스공연은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종합 4위에서 한단계 오른 종합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이번 소년체전기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장이 광주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학부모등 3만4천명이 광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각자·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남은 날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관계 장학관, 장학사들이 집에 거의 뜻들어갈 정도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목포공공도서관 학부모 아카데미 개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대장 김인동)는 지난 21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충장로번영회 등 유관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깨끗한 빛고을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목포공공도서관(관장 류성수)은 지난 21일 시청각실에서 지역 학부모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열리며 오는 6월 4일까지 운영된다.

전 11시 장군의 땅. 011-628-2348.

062-1366.

부음

▲이상윤씨 별세 주현(전남매일 지방부장)·주영·주화·주호·경숙씨 부친상=발인 23일(금) 각 고향 그린장례식장 12호 011-624-9898.

▲옹정순씨 별세 노용국(농업)·용균(무안 동양메이저)·용섭(안산 건축업)·행선(전남대병원)·영균(안산 목사) 죽모진상=발인 23일(금)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4400.

▲박남영씨 별세 균수·명수·현주 씨 부친상 장복남씨 빙부상=발인 23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광주 남구문화원 강진 문화유적 담사=24일(토) 오후 9시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 앞 출발. 062-671-7356.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허영만(목포대 교수)씨 장남 일현군 김의기씨 차녀 희숙양=24일(토) 낮 1시 10분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웨딩홀.

▲오종남(전 광주학생교육원 교학부장)·임경순(광주보훈병원 간호부장)씨 장남 정성군 박민석·임희순 씨 차녀 라영양=24일(토) 오후 2시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오병갑(비케이건설 사장)씨 차남 민석(치과의사)군 조영관씨 장녀 난주(치과의사)양=25일(일) 오전 11시 50분 장동 오페라하우스 1층 특설.

▲진봉안(구례 호남병원장)씨 장녀 지영양=25일(일